

# 피말린 연장 혈투 ... 신지애 9번째 홀서 끝냈다



신지애가 10일(한국시각)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LPGA투어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폴라 크리머와 9차전까지 가는 연장 승부 끝에 우승을 확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 우승

신지애(24·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총상금 130만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신지애는 10일(한국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킹스밀 리조트 리버 코스(파71·6384야드)에서 열린 대회 5일째 폴라 크리머(미국)와의 연장전에서 승리했다. 전날 16언더파 268타로 크리머와 동타를 이뤘던 신지애는 18번 홀(파4)에서 계속 열린 연장 8개 홀에서 승부를 내지 못해 이날 9차 연장부터 경기를 재개했다. 40야드 16번 홀(파4)에서 열린 9번째 연장전에서 신지애는 파를 지켜 보기에 그린 크리머를 제치고 우승 상금 19만 5000달러(약 2억2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2010년 11월 일본에서 열린 미즈노 클래식 이후 1년10

개월 만에 LPGA 투어 대회 정상 복귀다. 또 LPGA 투어 통산 9승을 수확해 한국 선수로서는 25승을 올린 박세리 다음으로 많은 승수를 기록했다. 올해 LPGA 투어 19개 대회 가운데 4월 나비스코 챔피언십 유선영, 7월 US오픈 최나연, 에비앙 마스터스 박인비, 8월 제이미 파 톨리도 클래식 유선영, 캐나다오픈의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에 이어 한국(계) 선수의 6번째 우승이다. 전날 해가 질 때까지 겨뤘던 나지 않던 승부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9시에 재개돼 20분 만에 끝났다. 나란히 두 타 만에 공을 그린 위에 올린 둘의 승부는 퍼트에서 갈렸다. 먼저 10m 정도 거리에서 시도한 크리머

의 버디 퍼트가 홀 오른쪽을 살짝 비껴갔고 홀과 4m 정도 떨어져 있던 신지애의 공 역시 오른쪽으로 휘었다. 그러나 신지애의 공은 홀에서 약 50cm 정도에 붙어 있었지만 크리머는 2m 정도 거리에서 파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크리머의 파 퍼트는 홀 오른쪽을 살짝 스쳐 지나갔고 신지애는 침착하게 파 퍼트에 성공해 81번째 홀에서 자신의 9번째 투어 우승을 확정 지었다. LPGA 투어 사상 서든 데스 방식의 최장 연장전은 1972년 코퍼스 크리스티 시비탄 오픈에서 나온 10차전이다. 이 대회에서 조앤 프렌티스가 연장 10번째 홀에서 샌드라 파머, 케시 위트워스를 꺾고 우승했다. 2명이 치른 서든 데스 방식 연장전의 최장 기록은 이번 신지애와 크리머가 다시 썼다. 종전 기록은 2004년 다케후지 클래식에서 크리스티 커(미국)가 한국의 전설안을 연장 7번째 홀에서 물리친 것이었다. /연합뉴스



**신지애(24)**  
출생 1988. 4. 28  
신장 156cm  
소속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요경력  
2008 LPGA투어 브리티시 여자오픈 최연소 우승  
LPGA투어 미즈노 클래식 우승  
LPGA투어 ADT 챔피언십 우승  
2009 LPGA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십  
LPGA투어 웨그먼스 LPGA  
LPGA투어 P&G 뷰티 NWO 인스 챔피언십  
2010 LPGA투어 에비앙 마스터스 우승  
LPGA투어 미즈노 클래식 우승  
2011 LPGA투어 기아 클래식 준우승  
LPGA투어 슐라이트 클래식 공동 2위  
2012 LPGA 킹스밀 챔피언십 우승

신지애 랭킹 10위

청야니 1위·최나연 3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연장 혈투 끝에 우승을 차지한 신지애의 세계랭킹이 급상승해 '톱10'에 들었다. 신지애는 11일 발표된 볼렉스 세계여자골프랭킹에서 6.00점을 받아 지난주보다 3계단 상승한 10위에 올랐다. 올해를 7위로 출발했던 신지애는 부상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거나 부진하면서 지난달 첫째 주부터는 10위밖에 머물러 있었다. 청야니(대만)는 13.97점으로 1위를 지켰고, 최나연도 3위(8.38)를 유지했다. 양희영은 7위(6.39), 안선주는 8위(6.37)에 올랐다. 한편 신지애와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9차 연장까지 접전을 펼친 폴라 크리머(미국)는 4계단 뛰어오른 14위(5.40점)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폴라 크리머가 신지애와 벌인 9번째 연장 승부에서 버디 퍼트를 놓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승 앞 50cm ... 너무 긴장됐어요”

### ■ 신지애 인터뷰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우승이었습니다. 결과가 좋아 정말 기쁘고 우승을 기다리신 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여자골프의 간판 신지애가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승 가뭄을 털어내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어올려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1년10개월만의 우승이다. 소감은.  
▲그동안 우승의 고비를 넘지 못했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번 우승은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다. 마지막 우승 퍼트 거리가 50cm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너무 긴장됐다.  
-연장전 준비는 어떻게 했다.  
▲전날 연장 8차전을 치르고 나니 너무 힘들었다. 다행히 사촌오빠가 트레이너라서 마사지를 해줘 피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됐다. 어제 경기를 끝내고 일찍 잠자리

에 들어 피로를 풀려고 노력했다.  
-18번홀에서 연장전을 하다 16번홀로 바뀌었다. 승부의 영향은 없었다.  
▲18번홀이나 16번홀이나 버디를 하기 보다는 파를 지켜야 하는 까다로운 홀이었다. 아침에 연장 9차전을 하니 이슬이 많이 내렸고 그린 스피드가 빨라졌다. 그린에 빨리 적응한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  
-크리머가 전날부터 경기를 다음날로 미루지 말고 속행을 주장한 것 같았는데.  
▲마지막날 결과를 보고 싶었던 것은 나

도 마찬가지였다. 크리머가 경기 속행을 위해 티박스에 나섰지만 이곳은 해가 빨리 지는 곳이다. 그린까지 가면 더 어두워 질 것 같아서 다음날로 연장전을 미루기로 했다.  
-브리티시여자오픈 준비에 차질은 없나.  
▲열심히 하고 좋은 기분 유지하겠다. 체력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원컨디션을 되찾고 영국 날씨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감각을 유지하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경기를 하겠다.  
-오랫동안 우승을 기다린 팬들에게 한마디.  
▲성원해주신 팬들에게 보답을 하게 돼 기쁘다. 팬들이 같이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10월에 열리는 하나-외환 챔피언십을 위해 한국에 들어가는데 더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연합뉴스

## 상승세 한국 여자군단 브리티시오픈 우승컵 노린다

### 내일 티오프 ... 신지애·최나연·리디아 고 등 출전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는 한국여자골프군단이 이번에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의 우승컵을 노린다. 13일(한국시각)부터 나흘간 영국의 로열 리버풀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당초 8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런던올림픽과 중책을 피하기 위해 9월로 옮겨졌다.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남자대회 브리티시오픈과는 달리 여자대회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1994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편입됐고 2001년이 되어서야 메이저대회로 승격됐다. 총상금 275만달러가 걸린 이 대회는 한국 선수들의 상승세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한국 선수들은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유선영)과 US여자오픈(최나연)을 제패했다.

제5의 메이저대회로 불리는 에비앙 마스터스에서는 박인비가 우승해 이번 시즌 주요 대회의 우승컵은 한국 선수들이 가져갔다. 여가다 최나연과 함께 '원투 펀치'를 이뤘던 신지애가 1년10개월의 침묵을 깨고 10일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우승, 한국군단에 큰 힘을 보탤 유선영도 한화금융 오픈 우승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등 한국골프군단의 주축 선수들이 올 시즌 재기량을 100% 발휘하고 있어 이번 주 대회의 우승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관심을 모으는 또 하나의 선수는 15세의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한국이름 고보경)다. 아마추어 신분인 리디아 고는 지난달 27일 캐나다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LPGA 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대회에서도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리디아



최나연 유선영 리디아 고

고가 중앙감을 떨쳐내고 메이저대회에서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한국군단에 맞서는 강력한 라이벌은 청야니(대만)다. 청야니는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것을

포함해 메이저대회에서만 5승을 거둔 '메이저 쉐어'이다. 시즌 초반 3승을 올린 청야니는 하반기 들어서는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1주를 쉬면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연합뉴스